

한빛원전 안전 대책 없나... 시름 깊어지는 영광군

군, 6년 간 문제 9건 집계
한수원·정부 안전대책 촉구
900억대 상생사업 담보 상태
대피도로 더딘 공사 지적도

영광군이 한빛원전 현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전 안전성 문제가 잇따르고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오면서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도, 한빛원전측이 마련해야 할 안전 대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18면〉

영광군은 여기에 한빛원전측이 약속한 지역 상생사업까지 담보상태에 머무르자 정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안한 원전... 끝없는 안전성 문제 = 영광 주민들은 한빛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못 살겠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생업도 미루고 청와대를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는 이러한 분위기도 반영됐다.

한빛원전 안전성 문제는 지난 2012년부터 모두 9차례나 도마에 오른 것으로 영광군은 집계했다.

우선, 10년(2003~2012)간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2012년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당시 검증도 안 된 부품을 10년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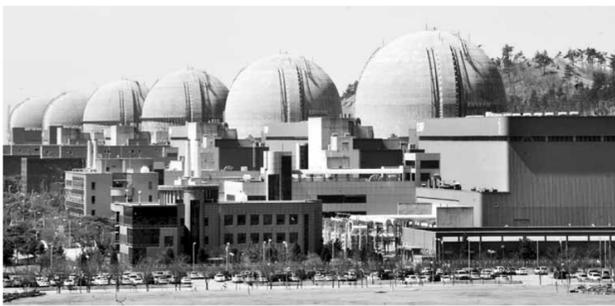
2012년, 한빛원전 3·4호기 원자로헤드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 결함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고 2013년에는 한



잇따른 한빛원전 안전성 문제

〈영광군 제공〉

2012년	품질보증 위조부품 사용 한빛 3·4호기 원자로 헤드 결함
2013년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 정비
2014년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로 방사능 환경 누출 한빛 2호기 원자로 용기 부실 검사
2015년	한빛 3호기 정비 후 재가동 5일 만에 불시 정지
2016년	사용 후 핵연료 소내 운반용기 누설
2017년	한빛 1·2호기(2016년) 및 4호기(2017년)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부실 시공



영광 한빛원전 전경.

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정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수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졌다.

한빛원전은 또 ▲지난 2014년 3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세관) 누설과 수송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 ▲한빛원전 2호기 원자로 용기 부실검사(2014년) 등으로 지역민들의 우려를 샀다.

안전성 문제는 이후에도 잇따랐다. ▲한빛 3호기 정비 후 재가동 5일 만에 불시 정지(2015년) ▲사용후핵연료 소내 운반용기 누설(2016년) ▲한빛 1·2호기,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2016, 2017년)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부실시공(2017년) 등으로 끝없이 불안감이 터져나왔다.

광주·전남 의회와 환경단체 등은 성명서를 내고 안전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영광군 153개 단체로 구성된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한빛원전 4~6호기 가동중단 결의문을 내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영광군의 고민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자칫 정주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영광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비상 대피도로 언제나 = 영광군은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방사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피도로 건설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영광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 총리실·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부 간 합의를 작성하고 영광군 범성면 화천리 ~ 흥농읍 성산리 한수원 사택 간 7.1km 4차선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구간 중 한수원이 시행을 맡도록 한 한수원 사택 ~ 한수원 정문 간 2.1km는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애초 약속대로 오는 2020년 준공을 위해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설계 및 사업 착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영광군 입장이다.

◇900억원대 ‘상생사업’, 어쩌나 = 영광군이 한빛원전과 추진중인 900억원대 ‘상생사업’도 경고등이 켜졌다.

영광군은 지난해 5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에 보낸 900억원대 규모의 ‘원전 상생자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지원 규모 등 답변을 받지 못했다.

3개 사업계획은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및 기업 유치(500억) ▲영광지역 모든 생산품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300억) ▲한빛원전 온배수 폐열 활용한 에너지 공급시설(100억)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핵심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5년 1월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군수·군의회 의장의 면담 과정에서 이뤄진 조 사장의 ‘상생사업 지원 약속’에 따라 3가지 지역 상생 사업을 담은 계획서를 한빛원전측에 제출했지만 여태껏 본격적 사업 추진은 커녕, 구체적 실

행 여부조차 여태껏 약속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한수원측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1조 60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부정적 분위기가.

영광군은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지 모른다는 점에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이 비슷한 취지로 한빛원전측에 300억원대 사업(4개) 사업을 제안, 지난해 9월 구체적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상생발전 협력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고창군과의 정책 추진력이 비교되는데다, 자칫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중도~자은도 ‘섬들의 고향 1호’ 주민 발 역할 특목

〈신안군 직영 여객선〉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직영 여객선인 신안 ‘섬들의 고향 1호’가 주민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섬들의 고향 1호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여객 3689명, 차량 1321대를 실어 날랐다. 이 기간 수송량은 평소의 3배에 달한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섬들의 고향 1호는 신안군이 35억원을 들여 건조한 281t, 정원 150명 여객선으로 지난해 9월 운항을 시작했다. 신안 북부권인 중도와 중부권인 자은도 바닷길을 하루 4회 왕복한다. 중도와 자은도는 바닷길로 4.5km 거

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 전 북부권에서 중부권 섬으로 들어가려면 무안, 목포를 경유해 육로 75km를 돌아야 했다.

연간 운영비 6억원(추정)이 들어가는 대신 민간 여객선의 3분의 1 수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주민도 편해졌지만, 무엇보다 신안 북부와 중부권 연계가 가능해져 관광 활성화 효과도 크다”며 “섬들의 고향 1호는 내년 개통 예정인 새천년대교와 함께 신안 해양관광 르네상스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섬들의 고향 신안 화합대축제’ 9월15~16일 안좌도 해변운동장

‘2017 섬들의 고향 신안 화합대축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내년 개통을 앞둔 새천년대교 건설로 신안 중심권으로 떠오르는 안좌도 해변운동장에서 열리며 체육대회, 향토요리 경연대회 등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 등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 지역민들의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 가고 싶은 섬, 살기 좋은 섬, 머무르고 싶은 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의회 ‘헌옷 수거함 관리자 실명제’ 발의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헌옷(의류)수거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27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문경연 목포시의회 의원은 최근 헌옷수거함의 색깔, 형태, 설치 기준, 수거방법 등을 담은 ‘목포시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목포시 도로변·주택가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의 경우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안을 통해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자는 폐의류 수집과 운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의류수거함의 실명제를 통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운영자를 선정,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투자가치 높은 물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문의 H. 010-3605-5000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들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리조트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기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호텔 근처
- 6층중 4층, 210평
- 2012년건축, 분할매매가능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시세/ 감정가 - 12억 5천만원
- 매매 - 7억 8000만원